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군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전홍용 편집: 양재용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신년 메시지

만약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13~18)

만약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바뀔까요? 예수님은 이 세대의 마지막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마 24:5~7, 15~44).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 예수님은 없고 인간의 영광과 찬사를 가득 차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 때 일어날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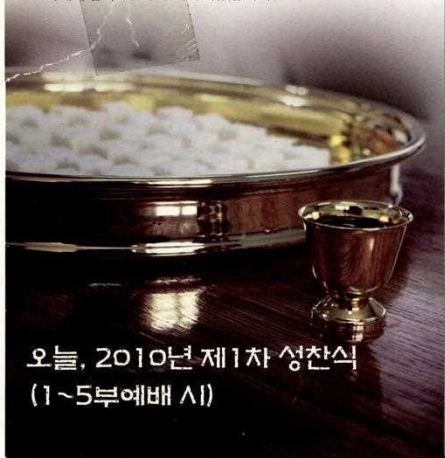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신자들의 몸이 가장 먼저 변화될 것입니다(살전 4:15~16). 이미 죽은 신자들이 가장 먼저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생의 모든 굴레와 고통, 한계를 벗어버리기를 소망했습니다(빌 1:23; 고후 5:8). 만약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그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요일 3:2).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롬 8:23).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때 경건하게 될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참 신자들은 공중에서 변화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참 신자들은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있다면 하늘 위로 날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살전 4:17; 행 1:9,11).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히 9:27). 예수님께서 오는 재림하고 만일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려면 여러분은 죽음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전 15:51~5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믿기를 거부한 모든 사람, 믿기를 주저한 모든 사람. 그들은 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요일 2:28). 오늘 교회에 앉아 있는 회중 가운데에도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살전 4:13~14).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을 실천한 신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드러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요일 4:17).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참으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즐거이 찬양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8). 아멘.

2010년이 밝았습니다. 2010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걷는 모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딱 한 걸음, 예수님과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15분만 일찍 준비하십시오. 천국입문인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더욱 많은 기도와 격려를 해 주십시오. 다음 주간부터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니 더욱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길 2010년의 한걸음들을 기대하십시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10년 제1차 성찬식
(1~5부예배 시)

HOW OUR CHURCH SHOULD START THIS YEAR

⁽²⁹⁾“And now, Lord, take note of their threats, and grant that Your bond-servants may speak Your word with all confidence, ⁽³⁰⁾while You extend Your hand to heal, and signs and wonders take place through the name of Your holy servant Jesus.” ... ⁽³³⁾And 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were giving testimony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abundant grace was upon them all.

(Acts 4:29~33)

The whole world has turned its calendar to the year 2010. Many people experienced difficult times in 2009, and some had it easier.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everything that happened last year is now behind us. We need to stop looking back, whether in regret for the bad things or in pride for the good things, and start looking up to Jesus Christ only. We need to focus on the things that really matter. How do we do that? How should we start this year? Let's look to the Bible to see how the primitive church began.

The primitive church began with the great spiritual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came down to the prayer gathering of one hundred and twenty believers (Acts 1:15) on the day of Pentecost (Acts 2:1~4). Through their faith the Bible tells us that another three thousand souls were converted (Acts 2:41), and then again another five thousand converts (Acts 4:4) were added to the church. What a great start! I hope the same thing happens in our church this year. I hope a new beginning will unfold for you and me. Most of the first Christians were cowards before the Holy Spirit came down. After His coming, even though the environment was extremely dangerous for them because of the cruel anti-Christ power that dwelled in Jerusalem, they became brave. Everyone lifted their voices to God with one accord and said, “And now, Lord, take note of their threats, and grant that Your bond-servants may speak Your word with all confidence”(Acts 4:29). The spiritual power of the Holy Spirit gave the primitive church the courage to live the Christian life. I hope our church starts this year with the great spiritual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primitive church started with many conversions. I want everyone sitting in our pews to receive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not as their advisor, confidant, or blessing friend, but truly as their Savior. Acts 16:31 says,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We must confess our sins because Jesus died for them,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1 Jn. 1:9). For those who have already accepted Jesus, then you need to return to your first love, “But I have this against you, that you have left your first love. Therefore remember from where you have fallen, and repent and do the deeds you did at first; or else I am coming to you and will remove your lampstand out of its place – unless you repent”(Rev. 2:4~5). Please let the Holy Spirit reign in you by accepting Jesus, confessing your sins, and keeping Him as your first love. Hebrews 12:2 says,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ha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The primitive church put Jesus first, and prayed that God would use them, “while You extend Your hand to heal, and sign

and wonders take place through the name of Your holy servant Jesus”(Acts 4:30). I hope our church starts this year with many conversions.

The primitive church set in motion prayer, and God answered, “the place where they had gathered together was shaken,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Acts 4:31). If a loved one is still lost, now is the time for them to get right with God. This is the year that we conquer our negative attitudes by letting the Holy Spirit take control. How can this happen? Matthew 16:24 say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We need to change like that. We need to be positive and deny ourselves, living by faith. Let this be the year that God restores your health, house, marriage, peace, or whatever the praying need. This is the year to get answers! A revival in our church would make this year a year of forgiveness, a year of sharing, a year of reconciliation with God. A revival in our church this year would truly make all the barriers fall! The primitive church displayed true Christian love, “And the congregation of those who believed were of one heart and soul; and not one of them claimed that anything belonging to him was his own, but all things were common property to them”(Acts 4:32). That is true revival! Don't you want our church to get a praying answer like this one? I hope this year that whatever our church's praying needs, we get an answer.

The primitive church began evangelizing, “And 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were giving testimony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abundant grace was upon them all”(Acts 4:33). They had nothing but the gospel! God's word is everything,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Lk. 1:37). Right now, during the 21st century, witnessing is our weakest point. We don't witness with boldness. It is the greatest lack in the churches today.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made an effort to win a soul? Personal witnessing is what this church needs. Abundant grace is available for your life and this church. We need to faithfully move the limits and claim all God wants to give us. I hope this year that our church greatly witnesses the gospel.

My dear friends, ten days have already gone by. I hope your resolution to start this year with your Bible will reap bountiful rewards. Like the primitive church, our church can start this year strong in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can come down on us and make converts and we can grow strongly. Let's accept Jesus Christ as our Savior, and pray for the Holy Spirit to use us. Let's come back to our first love and fix our eyes on Jesus. Let's pray and pray, so that whatever we are praying for we get the answer from God, who forgives and breaks down all barriers. Then, we can be a great witnessing force for Jesus' resurrection and return. Amen.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가

⁽²⁹⁾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³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

⁽³³⁾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4:29~33)



김성완 목사

전 세계의 달력이 20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9년을 힘겹게 보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지난해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이제 모두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뉘었던 일에 대한 회한이든 혹 좋았던 일에 대한 자긍심이든, 우리는 뒤돌아보는 것을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올 한 해를 시작해야 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 초대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자

초대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영적인 능력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날(행 2:1~4)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임했습니다(행 1:15). 그들의 믿음을 통해 3천 명의 회심자가 생겼고(행 2:41), 또 다시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행 4:4). 정말 놀라운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올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대부분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후, 예루살렘 내부의 적대적인 반 그리스도 세력으로 인해 분위가 극도로 험악해졌지만 오히려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행 4:29). 성령의 영적인 능력이 초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회개하자

초대 교회는 많은 회심자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우리의 조인자나 절친한 친구, 축복해주시는 분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6:31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것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첫사랑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4~5).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고백하며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첫사랑으로 계시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2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초대 교회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행

4:30). 올해 우리 교회에도 많은 회심자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자

초대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행 4:31).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지금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우리는 성령의 통치 아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6:24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긍정적이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 집, 결혼, 평안 그 밖에 기도가 필요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응답을 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 용서와 나눔,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부흥이 모든 장벽을 무너지게 한들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진정한 기독교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만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 4:32).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기도 응답이 있기를 여러분도 원하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자

초대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행 4:33). 그들은 복음 외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지 못함이 없느니라”(눅 1:37). 21세기 교회의 최대 취약점은 전도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노력한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개인적인 전도가 가장 절실할 필요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한 제를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복음의 위대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기로 한 여러분의 결심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초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다면 우리 교회도 놀랄게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킵시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전하는 위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

메시아의 죽음 15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잡히시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2)

1. 서 문
2.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점
3. 예수의 고난의 예시성
4. 예수의 고난이 주는 신학적인 위치(마가와 마태)
5. 예수의 고난이 주는 신학적인 위치(누가복음)
6. 예수의 고난이 주는 신학적인 위치(요한복음)
7. 고난의 이야기의 범위와 내용

8. 마가복음과 마가복음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
9. 마태복음에 쓰여진 특별한 자료와 고난의 이야기
10. 누가의 예수 고난의 이야기와 그의 자료를
11. 메시아의 죽음(누가가 사용한 특별한 자료1)
12.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 죽으시다(누가가 사용한 특별한 자료2)
13. 예수께서 묻히시다(누가가 사용한 특별한 자료3)
14.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친신 후에 찬미가와 감람 산으로 가셨다(막 14:26).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곳은 겟세마네였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다(막 14:32). 이것이 마가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잡히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요한의 기록은 다르다. 우선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마지막 만찬에 대한 기록이 없다. 다만 마지막 만찬을 했을 거라는 정황을 파악할 뿐이다. 요한은 마지막 만찬에 대한 것보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요 13~17장). 또한 이 모든 말씀을 마친신 후에 움직이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감람산이나 겟세마네라는 지명을 언급하기보다는 기도문(예루살렘과 감람 산 사이를 흐르는 시내) 시대를 건너 동산으로 갔음을 밝혔다(요 18:1).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막 14:42).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셨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요 14:31). 십자가 사역을 앞둔 예수님의 고민, 간구에 대해 바가는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일(막 14:33~34)이라고 기록한 반면, 사도 요한은 사역의 마지막에 있었음을 기록하였다(요 12:23,27).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고민과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음을 밝혔다(요 12:28~29). 이것은 누가복음의 기록과 비슷하다(눅 22:43). 또한 ‘간’에 대한 의미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비슷하다(막 14:36 ; 요 18:11).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신다. 이 부분에 대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차이가 있다. 우선 바가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가롯 유다와 종교지도자들에게 파송된 검과 몽치(곤봉)를 가진 무리였음을 밝혔다(막 14:43). 또한 가롯 유다의 교육을 받아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했다고 기록하였다(막 14:44). 이에 반해 사도 요한은 유다와 종교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로만 아니라 700여 명의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음을 기록하였다(요 18:3). 특히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아셨기에 그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요 18:4). 예수님은 무기를 들고 자신을 위협하는 군인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담대히 그들과 맞섰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베드로에 대해서 파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이름을 밝혔다(막 14:47 ; 요 18:10).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잡히시는 장면에 대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의 증언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라도 이 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각각의 저작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약간의 차이는 오히려 우리에게 한 쪽에서 보지 못했던 주님의 메시지를 또 다른 쪽에서 발견하는 은혜로 바뀔 것이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 아니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셨다. 요나 선지자처럼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 하려는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자.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최후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치기칼럼

내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

주일 아침, ‘째까짜까, 째까짜까, 땡~’ 종소리와 함께 시계바늘이 11시를 가리킨다. 그런데 오늘따라 찬양대원을 제외한 우리 아이들이 한 녀석도 오지 않는다. 또 다시 10분, 20분... 나도 모르게 시선이 자주 문 쪽으로 향한다. 이쯤 되면 목사님의 설교도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녀석들 정말...’ 나는 어쨌든 아이들과 통화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곱씹으며 두근대는 마음을 가라앉혀 보려 노력한다. ‘네, 내일 가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약속이 있는데 늦게도 갈게요.’ 감기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경우 외에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배에 오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11시 30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이들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

쉽잖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이들의 삶에서 우선 순위가 아닌 것이 그렇게도 쉽잖았다. 그 때였다. 한 녀석이 열대벌레 예 배당 안으로 들어선다. 똥었다는 민망할 때문일까. 녀석은 자리에 앉더니 나를 바로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꼭 숙인다. ‘그래도 양심은 있군. 훗~!’ 뻔뻔하지 않은 녀석의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 손이 저절로 녀석의 성경을 뒤적여 본문 말씀이 있는 곳을 펼쳐 준다. 녀석도 민망함이 조금은 누그러졌는지 자세를 바뀔 뻔한 모습을 읽으며 예배에 집중한다. ‘아유~ 이 귀여운 노~음.’

오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나는 속으로 많이 놀랐다. 몇 주 되지 않았지만 내 자식이라고 벌써 나의 똘똘 행동을 알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자녀는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배운다고 했다. 이 말은 자녀는 부모의 훈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면서 자란다는 말일 것이다. 똥 때문에 아침 교회에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나의 행동을 어찌 그러리 똥때났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이들은 내가 지각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텐데 어찌 알고 그렇게 따라하는지. 허~.’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일 년 동안 어떤 영적 부모가 되어 줄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대로 아이들에게 해 주자’는 것이다.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행동 그대로... 부드러운 눈길과 인물의 언어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그 행동 그대로...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지 내가 살아오면서 알게 된 그것 그대로... 너무나 매력적인 예수님을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힘을 것이다. ‘그러나 예들아, 부디 나의 나쁜 행동은 배우지 말고 좋은 행동만 배워 줘.’

힘찬 믿음의 한 걸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필요로 하는 그 곳을 향해 2010년에도 단기선교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14)



예수님의 마음 품고

120년 전, 주의 부름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러 한국 땅에 왔던 호주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TV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하게 살던 우리 민족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병원과 학교를 세워 치료와 교육을 행하는 등 여러 모양의 구제와 봉사로 주의 일에 헌신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많은 선교사가 행했던 여러 일을 빛 바랜 사진들로 보여준 뒤, 그들이 우리 나라에서 펼친 선교 인생을 한 사람씩 사진과 함께 자막으로 소개하였다.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많은 업적을 남긴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급박한 환경 변화와 이 땅에 창궐하던 풍토병으로 인해 도차 즉시, 또는 임신 중 사망 등 이들도 없이 빛도 없이 생명의 불씨가 꺼져갔던 무수한 선교사들도 있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열고도 험난한 여정에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철저히 내어 팔졌을까? 자신의 민족도 아니요 가까운 나라도 아닌 이곳까지 와서 자신들을 받게 주지도, 알아 주지도 않는 이 미개한 민족에게 과연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정말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다. 그들이 그토록 많은 희생과 수고로 우리 민족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었다.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뜨거운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이 흐르도 또 흘렀다. 텔레비전을 끄고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무릎 꿇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오래 전 이 나라를 사랑하사 복음의 귀한 발걸음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열방을 향하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당대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마음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씨앗을 기꺼이 뿌리겠습니다.”

한성해(집사, 24교구)

복음만 받아들이면

힐벗고 굶주린 그들이 불쌍해서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어 육신도 부릴 수 없는 그들의 현실에서, 십자가 복음만 받아들이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참 제자의 모습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간절히 마음으로 전했을 때 그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씨만 뿌린다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선교였다.

김효선(집사, 16교구)

생명의 복음

우리가 사역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정탐했던 지역을 사역지로 정하고 떠났지만, 우리는 선교 첫날부터 탄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호기심으로 가득찬 눈동자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영혼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참 구원자이신 생명의 복음을 힘껏 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역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어 있는 이곳의 많은 영혼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사역기간은 살아 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백종훈(인집사, 14교구)

뇌리속에 남겨진 전도지 한 장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선교를 하였지만 전도지 없이 사역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25개 문장과 몇 가지 단어만 정확히 외우면 어느 정도 소용이 되리라는 나의 생각은 큰 오산이었다. 전도하려고 그들에게 다가서면 어찌 된 일인지 그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들의 국민성 탓인지, 전도 문장을 아무리 따라해 보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 하루 사역을 마치고 나니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러나 다방면에 걸쳐 노력한 결과, 하루 이틀 지나 그들이 우리의 발음을 알아듣자 회의를 느끼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말씀을 전했다. 일단 씨를 뿌린 것 외엔 근거가 없으니 얼마 안 있으면 익혀질 그들의 뇌리속에 남겨질 전도지 한 장이 그토록 소중할 수가 없었다.

송희영(집사, 5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25일(금) ~ 1월 2일(월)	에버다부 2팀	변창대
12월 25일(금) ~ 1월 2일(월)	6교구 4팀	송영성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소망!

▶ 새해 새날을 맞이하여 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회개합니다. 지난 해 주님이 함께 마음을 알면서도 불평과 불만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새해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정미(집사, 3교구)

▶ 주님, 사랑해요. 내 안에 감추어진 죄인의 모습,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 사랑한다 하시니 정말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할래요. 김진애(집사, 15교구)

▶ 벌써라도 못한 나를 지난 1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문밖에 세워두지 말고 내 마음 활짝 열어 주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목이 굳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하고 늘 기도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홍의숙(집사, 7교구)

▶ 주님, 2009년을 되돌아보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2010년에는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이경애(권사, 20교구)

▶ 주님, 지금까지 제 발 앞을 말씀의 등불로 비춰 주셔서 어리석은 죄인이 주님의 한 걸음을 따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게 주신 일들 오직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정종원(집사, 23교구)

▶ 죄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죄악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을 보내며 진실로 나 자신을 부인하며 회개하기를 원하며, 2010년을 맞이하며 지어 있는 자, 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 천국에서 빛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대웅(안수집사, 13교구)

▶ 자기부인 속으로 끊임없이 부르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2010년 새해에는 내 안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으로의 초대에 감사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김종배(권사, 22교구)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 4:17~18)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문여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

매일 새벽에 내가 “주여! 내 자아와 죄성, 정과 욕심, 이성의 자량, 안목의 자량,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 진리의 뜻으로 못 박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나의 생활은 아직도 순간순간이 죄의 욕심이고 죄성이다. 왜 그렇게 날 드러내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지 나 자신도 알 수가 없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선한이라곤 겨우세 만들도 없는 것 같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무지함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깨뜨렸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한 후에도, 아니 지금도 미혹 때문에 속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다. 변명할 수 없는 무지함이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 바보도 이런 바보가 있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보지만 단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통찰보다 더 어려운 내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다. 나는 끊임없이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주님은 나를 끊임없이 의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셨다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로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길 원하셨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내 세상의 그리스도이신 그분! “아, 성령님!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또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시길 원하시는지 알

게 하옵소서. 나의 죄악된 모습, 무지함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한 참 감사의 샘들이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간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내 원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구절을 기쁨의 묵상에 본다. 잠치시던 밤에 대재상자의 하숙들에게 따귀를 맞고 침뱀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는 장면부터 끝고나 언덕까지의 장면들을 묵상한다. 거기에는 깊은 수치와 아픔이 있다. “나도 주님 때문에 이런 수치와 아픔이 있어야지, 주님 때문에 십자가의 그 아픔이 있어야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진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왔으면...”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조금의 고난도 참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부끄럽다. 지나고 보니 그 고난은 참으로 내 고난이 아니었다. 그 고난은 주님이 날 대신하신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아닌 이것을 난 고난이라고 불렀었다.

영원으로 이어주는 그분의 구원은, 그것을 소유한 자만이 알게 되는 참 기쁨이요 감사이다. 그것은 항상 현재의 감사요 기쁨이다. 구원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은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죄를 용서받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킨,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계신 곳에 갈 수 있음, 오직 내 소망은 주님뿐!’ 꿈을 꾸면서도 종일거리는 꿈 같은 소리이다. 그리고 현실이다.

새가족 / 십자가의 길

새가족양육부 2009년 12월 수료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 지난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죄의식 속에서 하나하나 용서를 구하고 기도 드리면 마음 한구석 한구석에서부터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을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생을 다할 때까지 주님께 대한 마음이 변할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해연)

✦ 예전에는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가리라고 어렵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기쁘나 즐거우나, 인생과 작별을 고할 순간이 올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양문환)

✦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교육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황기수)

✦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전에는 예수님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주일성수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가족의 건강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옥수)

✦ 준비된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자비하시며 한없이 은혜를 느끼게 하시는 용서와 감사의 예수님이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만과 탐욕과 부정적인 생각과 화가 많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용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정현미)

✦ 예수님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분이시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아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사업을 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성경도 읽고 매주일 좋은 말씀 듣고 찬송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힘들 때 예수님께서 날 보듬어 주시고, 또 내가 기쁠 수 있고 기

도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생겨서 기쁩니다. (원유정)

✦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게 되어 순종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생활을 하겠습니다. (이숙자)

✦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애를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제가 마련해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던 예배, 기도, 찬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며 제가 궁금하고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어 너무 좋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성경 읽는 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삼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 믿음 생활을 재조명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깨달았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믿음이 자라게 기도해 주세요. (조재순)

✦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며 믿음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상수)

✦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되도록 제대로 믿겠습니다. (주성국)

✦ 늘 육신과 지만으로 가득 찬 저에게 선생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제가 이제껏 잊고 살았던 그 무언가를 생각하고 느끼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새가족부에서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장주환)

♡ 새 가족 을 환영 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	노연지	23	청년1부	
2	유호진	24	초등부	강신의(24)
3	이규필	21	청년3부	박연재(21)
4	장지원	1	고역자	
5	김현진	1	사모	
6	정선아	1	유치부	
7	오옥금	4	청년3부	강여경(4)
8	정서진	5	중등부	박지혜(2)
9	기준현	7	청년2부	박 정(7)
10	남지훈	4	고등부	박푸름(20)
11	이 선	7	대학부	문윤미(7)
12	최윤경	12	고등부	강지나(12)
13	박민지	10	중등부	정혜진(10)
14	정소영	2	대학부	임은혜(1)
15	이진경	2	장년2부	
16	유옥자	5	장년2부	최준란(5)
17	심상민	5	장년2부	
18	심지은	5	고등부	
19	우정현	13	대학부	
20	배선아	24	청년1부	한만교(24)
21	김한조	13	중등부	강하람(1)
22	전재근	13	중등부	이광현(13)
23	이세영	17	청년2부	최진성(17)
24	임희수	23	장년2부	김기배(19)
25	김신희	19	청년1부	이수진(1)
26	방동섭	25	외선부	김복수(11)
27	이요카	25	외선부	김복수(11)
28	김지영	17	대학부	이초환(17)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겸허하고도 성실한 수고 속에 계시옵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여지고 알려지고 들려지소서

과장도 아니고 허식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각과 말 속에 계시옵소서

버려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나이다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고도 조용한 노력 속에 계시고

머지않아 내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모든 소원을 이루시며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시며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리라



